

국회 상임위, 예산 '무더기' 증액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에서 부처 및 지역의 지원 요청 사업이 무더기
로 반영되면서 대부분 부처 예산이 증액
되고 있다.

18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운영, 외교통상
통일,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
토해양부 등 6개.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
산만 2조8천6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됐다.

더욱이 나머지 상임위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지키
기 위한 지역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
피하게 됐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
영위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74억4천200만원과 81억1천
만원 증액했다.

6곳서 2조8천600억...靑·국회도 74억·81억 늘려

광주 속원 '가전로봇산업' 육성에 20억 신규 편성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해 117억700만
원에서 동결됐던 대통령 특활동비를 20억
원 증액했고, 비서동 건축 경비도 50억원 늘
렸다. 반면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비는 2억5
천만원 감액했다.

농식품위도 농업자금이자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천121억8천500만원 늘린 것을
비롯해 농업 관련 지원 금액을 대폭 보완해
농식품부 등 종예산을 9천190억원 증액했
다.

통일부 예산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예산 20억원 등 원안보다 117억여원을 증액

했으며 외교통상부 예산도 원안보다 133억1
천400만원 늘었다.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식경제
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도 정부 원안보다
각각 1천630억원, 3천280억원 증액됐다.

이 중에는 신규 편성된 광주시 반도체 조
명도시 조성(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10억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광주 태양광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20억
원의 예산이 있다. 또 삼성전자, 대우일렉트
로닉스, 캐리어 등 광주지역 가전업체의 속
원이었던 '가전로봇산업' 육성 예산으로 20

억원이 편성됐다.

예결소위를 통과, 20일 전체회의 통과
확실한 국토해양부 예산도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 1조4천186억원 증
액한 것을 비롯해 정부안보다 1조8천503억
원 늘었다.

물론 이들 상임위가 부처별 예산을 증액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다시 예
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
다.

최고기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상임위
의견일 뿐, 꼭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 입장과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합
리적인 정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
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세 규모 6조·세출 1조 삭감해야”

민주, 중산·서민대책 지원 등 6조3천억 세출 신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감세
규모를 정부안에 비해 6조원 줄이고 세
출을 1조원 순삭감 함으로써 적자상 국
채발행을 10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심사
원칙을 마련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이기 의
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부수입안을 국회 예결특위 논의에
연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부자 감세안’ 중 종합
부동산세 1조5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
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4천억
원, 소득세 7천억원 등 정부의 감세계획
중 6조원을 철회토록 할 방침이다.

세출 분야에서는 ▲SOC(사회간접
자본) 예산 3조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천억원 ▲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예산 1조
원 등 7조3천여원을 삭감한다는 목표

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육성사
업, 사용내역 미공개예산인 특수활동비,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홍보 및 역
사화곡 예산 등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신 ▲서민일자리 창출
지원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
협력 증진 지원 3천억원 ▲지방재정 지
원 1조원 등 6조3천억원의 세출을 신
설, 세출 분야에서 1조원 순삭감 계획
을 세웠다.

최 의원은 “감세 6조원 축소와 세출
순삭감 1조원을 통해 현재 17조6천억원
을 예상되는 국제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부자감세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천억원 ▲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예산 1조
원 등 7조3천여원을 삭감한다는 목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소국 연방제 도입 필요”

광주 은 이회창 총재 “지역별 산업화 기초 지원 위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8일 광주를
방문, 강소국 연방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천동 경북
궁웨딩홀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전남도당 창
당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
경제권 구상과 관련,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해서는 세계 경쟁을 따라갈 수 없고 다극화
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와 재정, 행정, 사법이 독립된 강소국
(強小國)을 5~6개 만들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전국을 균형있게 발전시
키자는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취지에는 동
의하나 호반이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제
외되거나 권역별 중요도에 있어서 다른 권

역과 차별되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
적한 뒤 “지역별로 충분한 특화와 산업화의
기초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강소국 연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부분 위한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부세를 폐지하
면 지방 특별교부세가 끊기는 문제가 있는
데, (중부세)세금 체제가 비정상적이므로 되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세라는 큰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
다.

금융위기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현재
경제팀은 신뢰를 얻지 못한 만큼 면모를 일
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전남도당은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경북궁웨딩홀에서 이회창 총재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선진당 전남도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연득 보
훈산업 대표이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리량기자 jrwi@kwangju.co.kr

이 총재는 앞서 KBS 라디오 연설에서 수
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당장 수도권 규
제를 풀면 해외 자본이나 외국 기업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닌 지방에 자리 잡았거나 이전
하려던 기업들의 수도권 U턴으로 지방은 공

동화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날 전남도당 창당
대회에서 이연득(55) 보훈산업 대표이사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 중부세 갈등 일단 봉합

과세 기준 6억원 잠정 결론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원 결정
에 따른 후속안을 놓고 내부 이견이 노출되
자 접점을 찾기 위해 내부 조율에 나섰다.

우선 의견차가 심했던 당 지도부 입장이
유연해졌다. 그동안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
준을 둘러싸고 “3년 보유”라는 정부안에 동
의하는 입장을 보였던 입태회 정책위의장은
18일 “보유 기준이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
라고 다소 탄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 중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던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은
“지금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다”고 더 이상
의 언급을 피했다.

이에 앞선 17일 오후 당 지도부내 이견이
계속 표출되자 박태 대표가 긴급히 홍 원

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을 당사에 불러 이
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차명진 대변인은 “중부세와 관
련해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가는 것은 국민
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의견을 정리하
는 것에 동의했다”며 “중부세율, 1주택 장기
보유기간, 과표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
도부의 의견을 잠정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과표 기준은 정부의
방안인 9억원 상향조정 대신 현행과 같이 6
억원으로 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고 차 대
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위 당정회의 날짜를 20
일로 확정하고, 이튿날인 21일 의원총회도
열어 중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최
종 조율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재수생 선형역습반' (Repeater) and '제주의 모든 것!!' (Jeju's Everything!!) featuring various product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SJ투어몰' (SJ Tour Mall)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and prices, including '제주피키지', '자유여행', '여니은', and '금프'.